

## 陸游 入蜀詩의 초기시적 위상

주 기 평\*

### <目次>

I. 서론	III. 入蜀詩의 형식
II. 入蜀詩의 내용	1. 詩體
1. 여정의 고달픔과 회한의 토로	2. 用韻
2. 풍광과 지리 및 풍속의 묘사	IV. 결론
3. 역사 유적지 방문	

### I. 서론

陸游는 남송 孝宗 乾道 5년(1169) 12월 6일 夔州通判으로 임명되었는데, 신병을 이유로 바로 부임하지 못하고 이듬해인 乾道 6년(1170) 閏 5월 18일 고향인 山陰을 출발하여 그해 10월 27일 기주에 도착하게 된다. 당시의 158일간의 여정은 《入蜀記》에 일기체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쓴 시를 入蜀詩라 칭하며 총 58제 63수의 시가 《劍南詩稿》 권2에 수록되어 있다.<sup>1)</sup>

入蜀時期는 육유의 생애에 있어 일대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시기로서,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입촉시의 분류 기준은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입촉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乾道 6년(1170) 봄 山陰에서 쓴 <장차 기주부로 부임함에 감회를 쓰다(將赴官夔府書懷)>부터 10월 27일 夔州에 도착하여 쓴 <강가 누각에 올라(登江樓)>까지를 입촉시로 보았다.

그동안 관념과 이상에서만 머물던 그의 우국 의식이 金과 대치한 현실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지향이자 의지로 구체화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쓰인 입축시 또한 육유 시풍의 전변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볼 많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入蜀記》에 비해 그동안 관심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니, 《입축기》에 나타난 우국 의식이나 음식 문화 및 풍속 또는 그 문헌학적 가치나 인용된 시문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방면의 국내외 연구성과들이 있는 반면,<sup>2)</sup> 입축시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를 단독으로 연구한 성과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sup>3)</sup>

육유의 시는 趙翼이 《甌北詩話》에서 총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풍격의 차이를 설명한 이래로<sup>4)</sup> 연구자들에게 널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필자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이를 적용하여 육유의 시를 初期, 中期, 晩期の 세 시기로 나누고 중기는 다시 ‘在蜀時期’와 ‘在山陰時期’로 세분화하여 각 시기별 풍격의 차이를 규명한 바 있다.<sup>5)</sup> 다만 기존

- 2) 최영준·이승매의 〈《入蜀記》文學價値研究〉(《중국문학》 66집, 2011), 김예주의 〈陸游의 《入蜀記》에 나타난 인문적 가치 연구〉(《중국문학연구》 98집, 2025), 王安琪의 〈論陸游《入蜀記》中的詩情畫意與愛國情懷〉(《延邊教育學院學報》, 第39卷 第3期, 2015), 郭一葦의 〈陸游《入蜀記》中的飲食文化探析〉(《中國民族博覽》 No.13, 2023), 黃立新의 〈《入蜀記》人文旅遊文獻學價値漫議〉(《圖書館工作與研究》 No.1, 2005), 胡傳志·盧嬌의 〈陸游《入蜀記》引據詩文的價値〉(《安徽師範大學學報》, 2017, 第6期), 劉瑋珺의 〈《入蜀記》引詩研究〉(《西華師範大學學報》, 2019, 第1期) 등이 있음.
- 3) 육유 입축시와 관련한 비교 논문으로는 《입축기》와 비교하여 입축시기에 따른 심리의 변화양상을 규명한 呂肖兔의 〈陸游雙面形象及其詩文形態觀念之複雜性-陸游入蜀詩與《入蜀記》對比解讀〉(《紹興文理學院學報》, 第31卷 第1期, 2011)과 예술 풍격의 변화의 관점에서 입축시와 출축시를 비교한 葉淑婧의 〈陸游入蜀詩和出蜀詩之比較研究〉(《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9)가 있음.
- 4) 趙翼, 《甌北詩話》 권6, 〈陸放翁詩〉 2조, “放翁의 시는 무른 세 번을 변화였는데, 종과는 본디 杜甫에게서 나왔다. 중년 이후에는 더욱 스스로 자신만의 성취를 이루었고 재주를 다한 이후에 그쳤다.(放翁詩凡三變, 宗派本出於杜, 中年以後, 則益自出機杼, 盡其才而後止)”
- 5) 초기(1125~1169)는 육유가 고향인 山陰을 떠나 夔州通判으로 부임하러 가기 전

연구에서는 입축시를 중기의 ‘재축시기’에 포함하여, 당시 중원수복의 열망과 우국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다른 우국시들과 같은 지향과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입축시의 개별작품을 고찰해보면 선명한 우국 의식을 바탕으로 불굴의 의지와 격정적인 기개를 토로했던 중기의 시보다는, 오히려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江西詩派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의 초기시의 특징과 경향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육유의 入蜀詩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 등을 분석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입축시의 육유 초기시적 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육유시의 시기 구분에 대한 재고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 II. 入蜀詩의 내용

입축시에서 육유는 주로 멀고 험한 여정의 고달픔과 회한을 토로하거나 여로에 경험한 풍광이나 지리 및 풍속에 대해 묘사하고, 아울러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며 느낀 자신의 감회를 나타내고 있다. 여정의 고달픔은 주로 객수와 향수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풍광과 지리 및 풍속 등을 묘사하면서는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과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난하고 곤궁한 삶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방문하는 역사 유적지에서는 과거의 영화로웠던 모습을 떠올리며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있다.

인 45세까지의 시기이며, 중기(1170~1189)는 기주와 南鄭 및 四川 등지에 있었던 55세까지의 전반기 ‘在蜀時期(1170년~1179년)’와 촉 지역에서 돌아와 산음에 머물며 福建과 江西 등지로 나가 관직 생활을 했던 65세까지의 ‘在山陰時期(1180~1189)’로 구분된다. 만기(1190~1210)는 이후 관직 생활을 마치고 산음에서 20년간 한거하며 여생을 보냈던 시기이다. 줄져, 《육유시연구》, 역락, 2010, 41-64쪽 참고.

육유의 입촉시에서는 그의 중기 시에서와 같은 우국의 정서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의 《入蜀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촉기》에서는 7월 7일 京口の 天慶觀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장로 보여는 초주 사람으로, 밥을 먹고 가라 붙잡으며 덕경당 편액의 탁본을 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함께 석두산을 올랐는데 서쪽으로 선화도와 역양의 여러 산이 보이며 참으로 형세가 뛰어난 곳이었다. 만약 다른 때에 건강을 도읍으로 정한다면 석두산이 응당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이다. 혹자는 지금 도성이 남으로 옮겨갔으니 석두산을 비록 지킨다고 해도 이익이 없다고 여기는데, 이는 사려 깊지 못한 것이다. 도성이 이미 남으로 옮겨갔지만 진회하가 성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 육조 때처럼 목책을 세우고 배의 항해를 막는 방식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장강은 천혜의 요새로, 도성이 이것에 가까이 있으면 칠웅성의 형세가 되어 육조 때보다도 나으니 어찌 반드시 회수에 의지해야만 공고하다 할 수 있겠는가?(長老寶餘, 楚州人, 留食, 贈德慶堂榜墨本. 食已, 同登石頭, 西望宣化渡及歷陽諸山, 眞形勝之地. 若異時定都建康, 則石頭當仍爲關要. 或以爲今都城徙而南, 石頭雖守無益, 蓋未之思也. 惟城既南徙, 秦淮乃橫貫城中, 六朝立柵斷航之類, 緩急不可復施. 然大江天險, 都城臨之, 金湯之勢, 比六朝爲勝, 豈必依淮爲固邪?)<sup>6)</sup>

여기에서 육유는 建康의 지리적 형세를 말하며 淮水보다는 長江이 鎭을 방어하는 요충지임을 말하고 있다. 《입촉기》 전편에 걸쳐 지리와 관련하여 이를 군사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한데, 이 또한 직접적인 우국 의식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서 입촉시를 각각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그 표현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6) 陸游, 《入蜀記》 권2, 7월 7일.

## 1. 여정의 고달픔과 회한의 토로

육유의 입촉시는 46세 때인 乾道 6년(1170) 봄夔州로 떠나기 전 山陰에서 쓴 <장차 기주부로 부임함에 감회를 쓰다(將赴官夔府書懷)>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궁핍 등의 이유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멀고 낮은 기주로 부임하는 것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해 윤5월 蜀 지역으로 떠나며 황명을 받들기 위해 잠시 臨安에 들렀다가 당시 參知政事로 있던 梁克家에게 쓴 <양 참정에게 드리다(投梁參政)><sup>7)</sup>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비록 같은 시기 산음에서 쓴 <예국기 사업을 보내며(送芮國器司業)>에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sup>8)</sup> 적어도 당시 육유의 기주행은 공명 수립의 의지나 우국 의식의 발로와는 관련이 없는, 다만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입촉시는 고향을 떠나 먼 이역으로 떠나야 하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대한 불만과 탄식이 근저에 깔려 있으며, 여정 중의 감흥이나 감회 또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서운 추위에 강릉 서문을 나서(大寒出江陵西門)〉  
 平明羸馬出西門, 새벽녘에 여윈 말 타고 서문을 나서니  
 淡日寒雲久吐吞. 옅은 해 차가운 구름이 오래도록 삼키고 토해내네.  
 醉面衝風驚易醒, 취한 얼굴에 바람 부딪혀 쉽게 술 깬에 놀라고  
 重裘藏手取微溫. 겹겹 깃옷에 손 끼워 약간의 따스함을 취하네.  
 紛紛狐兔投深莽, 어지러이 여우와 토끼는 깊은 풀숲에 숨고  
 點點牛羊散遠村. 점점이 소와 양은 먼 마을로 흩어지네.

7) 陸游, 《劍南詩稿》 권2, <投梁參政>, “노년에 과첩 땅으로 가게 되니, 힘든 고통은 그저 한 말 쌀 때문입니다.(殘年走巴峽, 辛苦爲斗米)”

8) 陸游, 앞의 책, 권2, <送芮國器司業> “조정으로 돌아가서는 이러한 일들을 먼저 해야만 할지니, 어찌 다만 옛 경전에만 힘을 발휘하는 것에 의지하리?(還朝此段宜先及, 豈獨遺經賴發揮)”

不爲山川多感慨, 산천 때문에 강개함이 많은 것은 아니니  
 歲窮遊子自消魂. 시절이 궁벽하여 나그네 절로 혼이 녹는다네.

〈배를 옮겨타고(移船)〉

沙際舟銜尾, 모래톱 가에 배들은 꼬리를 물고  
 相依作四鄰. 서로 의지하며 가까운 이웃이 되네.  
 暮年多感慨, 세모라 강개함이 많은데  
 分路亦酸辛. 여행길 또한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네,  
 折竹占行日, 대나무 꺾어 가는 날을 점치고  
 吹簫賽水神. 통소 불어 물신에게 굿을 하네.  
 無勞問亭驛, 수고로이 역참을 묻지 않으니  
 久客自知津. 오래된 나그네라 절로 나루터를 안다네.

이 시들은 9월 江陵을 지날 때 쓴 것이다. 첫 시에서는 여원 말을 타고 일찍부터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여행길의 고단함과 깊은 번민을 나타내고, 초가을 스산한 풍경에 궁벽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침울한 심경을 기탁하고 있다. 다음 시에서도 강가 모래톱에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모습으로 뱃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나타내고, 세모의 쓸쓸함과 여행길의 고단함을 말하고 있다.

10월 형문산을 지나며 쓴 다음의 시에서도 고된 여정과 험난한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잘 나타나 있다.

〈형문의 겨울밤(荊門冬夜)〉

常飢龜老欲無腸, 항상 굶주렸던 늙은 거북은 장이 없어지려 하니  
 臥聽寒更自短長. 누워 듣는 차가운 야고 소리는 절로 길고 짧네.  
 香碗得閑聊作伴, 향기 쟁반은 한가로워 그저 짝이 되고  
 酒盃因病頗相忘. 술잔은 병 때문에 자주 잊게 되네.  
 有情窗罅恰通月, 유정한 창틈 사이로 막 달빛이 통하고  
 耐冷櫓枝多得霜. 추위 견디는 노에는 많은 서리가 내리네.  
 歷盡風波知險阻, 풍파 다 거치고 난 후에야 험난함을 알게 되었으니  
 平生錯羨捕魚郎. 평생토록 고기 잡는 이를 잘못 부러워했었다.

육유에게 있어 의도하지 않은 관로의 고달픈 여정은 필연적으로 향수와 객수, 도성에 있는 옛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내게 하였으니, 이는 입촉시 전편에 걸쳐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말 위에서(馬上)〉

燈前薄飯陳鹽齏,	등불 앞 소박한 밥상엔 절임 채소가 놓여 있고
帶睡強出行江隄.	졸음 겨워 억지로 나가 강둑으로 가네.
五更落月移樹影,	오경의 지는 달은 나무 그림자를 옮기고
十月清霜侵馬蹄.	시월의 맑은 서리는 말발굽에 스미는데,
荒陂囓囓已度雁,	황량한 언덕엔 끼룩대며 기러기 이미 날아가고
小市啾啾初鳴鷄.	작은 시장에선 꼬끼오하며 닭이 처음 우네.
可憐萬里覓歸夢,	가련하도다, 만 리 밖에서 돌아가는 꿈 찾건만
未到故山先自迷.	고향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길을 잃었네.

〈강 위에서(江上)〉

江上霜寒透客衣,	강 위 서리는 차가워 나그네 옷을 파고드니
閉窗羸臥不支持.	창 닫고 파리하게 누워 견디지를 못하네.
羈孤形影眞相弔,	나그넷길의 외로움을 몸과 그림자가 서로 위로하고
衰颯頭顱已可知.	노쇠하여 쓸쓸함을 머리는 이미 안다네.
潦縮穩經行雨峽,	쌓인 물이 줄어 비 내리는 협곡을 편안히 지나고
竹疎臘見挂猿枝.	대나무 성기어 원숭이 매달린 가지를 많이 보네.
淸樽可置須勤醉,	맑은 술 동이 돌 수 있으면 힘써 취해야 하리니
莫望功名老大時.	늙어서의 공명은 바라지 말지니.

〈자귀현에서 돌아오며 취중에 도성의 제공을 생각하며 좌중에게 보이다  
(秣歸醉中懷都下諸公, 示坐客)〉

長謠爲子說天涯,	길게 노래하며 그대들께 하늘 끝을 말하려 하니
四座聽歌且勿譁.	사방 좌중들께서는 노래 들으시며 떠들지 마시길.
蠻俗殺人供鬼祭,	변방 풍속에서는 살인하면 귀신의 제물로 바쳐지고
敗舟觸石委江沙.	돌 부딪혀 부서진 배는 강 모래톱에 버려져 있네.
此身長是滄浪客,	이 몸 오래도록 창랑의 객이 되니
何日能爲飽暖家.	언제나 배부르고 등 따스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

坐憶故人空有夢, 앉아 옛 친구를 생각하니 헛되이 꿈에서만 있을 뿐  
尺書不敢到京華. 편지조차 도성에 다다를 수 없다네.

9월 江陵에서 쓴 앞 두 시에서는 이역에서의 처량한 가을 풍광을 바라 보며 향수와 객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10월 歸州 秭歸縣에서 쓴 세 번째 시에서는 강호를 떠도는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며 평온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지향과 도성의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2. 풍광과 지리 및 풍속의 묘사

육유는 장강을 거슬러 楚蜀 지역을 지나며 다수의 시편을 통해 그곳의 이색적인 풍광과 험준한 지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아울러 그곳에서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이색적인 풍속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힘겨운 자신의 삶과 처지에 대한 불만과 탄식이 근처에 깔려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강릉의 시골 주점 벽에 쓰다(題江陵村店壁)〉

青旆三家市,	작은 시장엔 푸른 술 깃발이 필력이고
黃茆十里岡.	십 리 언덕엔 누런 풀이 자라 있는데,
蓬飛風浩浩,	쭙은 날리어 바람은 호탕하고
塵起日茫茫.	먼지 일어 해는 어둑하네.
馳騁多從獸,	말 달려 짐승을 쫓는 일은 많은데
鋤耰少破荒.	호미와 곱방메로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은 적네.
行人相指似,	지나는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비슷하니
此路走襄陽.	이 길은 양양으로 간다네.

9월 江陵을 지날 때 쓴 이 시에서는 십 리 멀리까지 황량한 언덕이 이어져 있는 강릉의 경관과 수렵은 많고 농경은 드문 강릉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며 그들의 호방한 기질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0월 下牢溪에 이르

러서는 三游洞을 유람하며 38韻의 장편의 시로 삼유동의 기이하고 빼어난 경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sup>9)</sup> 계곡물의 맑고 청량함을 칭송하며 ‘주머니 안의 일주봉의 차는 천하에 명성을 전하건만, 이름난 샘이 없으면 맛볼 수가 없다네.(囊中日鑄傳天下, 不是名泉不合嘗)’라<sup>10)</sup> 하며 아무리 뛰어난 차가 있어도 좋은 물이 없으면 맛볼 수 없다는 말로 능력을 인정받고 쓰일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扇子峽을 지나면서는 ‘높은 누각은 드넓은 하늘에 임해있고, 외로운 정자는 깊고 그윽하게 숨어있네, 분명 속인이 아님을 알겠으나, 노가 급해 찾아갈 수가 없네.(高閣臨空豁, 孤亭隱邃深. 定知非俗子, 櫓急不容尋)’라<sup>11)</sup> 하며 협곡 속에 자리한 작은 정자의 깊고 그윽한 탈속적인 모습에 감탄하고 촉박한 여정으로 인해 찾아가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10월 夔州에서 瞿塘峽을 지나면 쓴 다음의 시에서는 여름날 구당협 의 웅장하고 거센 강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겨울의 평온한 모습과 대비하고 있다.

〈구당협의 노래(瞿唐行)〉

四月欲盡五月來,	사월이 가고 오월이 오려 할 때
峽中水漲何雄哉.	협곡에 물은 불어 어찌나 웅장한지?
浪花高飛暑路雪,	물결의 꽃은 높이 나니 여름 길의 눈이요
灘石怒轉晴天雷.	여울의 돌은 노해 구르니 마른하늘의 우렛소리네.
千艘萬舸不敢過,	수천수만의 배들이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篙工柁師心膽破.	상앗대와 키 잡는 사공들은 간담이 부서지네.
人人陰拱待勢衰,	사람들 가만히 손 모으고 기세 약해지길 기다리니

9) 陸游, 앞의 책, 권2, 〈하회계에 배를 묶어두고 삼유동을 유람하며 28운(繫舟下牢溪游三游洞, 二十八韻)〉.

10) 陸游, 앞의 책, 권2, 〈삼유동 앞 바위 아래 작은 못의 물맛이 매우 빼어나 가저다 차를 끓이다(三游洞前巖下小潭水甚奇, 取以煎茶)〉.

11) 陸游, 앞의 책, 권2, 〈선자협 산 중턱에 초가 누각과 작은 정자가 있는데, 매우 깊고 그윽하여 속인의 거처가 아니었다.(扇子峽山腹有草閣小亭, 極幽邃意其非俗人居也)〉.

誰敢輕行犯奇禍, 누가 감히 가벼이 행동하여 홀로 화를 범하리?  
 一朝時去不自由, 하루아침에 시간은 흘러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고  
 山腹空有沙痕留, 산허리엔 헛되이 모래 흔적만 남았네.  
 君不見陸子歲暮來夔州, 그대 보지 못했는가? 내가 세모에 기주에 와  
 瞿唐峽水平如油, 구당협의 물이 기름처럼 평온해진 것을.

시에서는 여름이 되면 구당협에 물이 불어 물살이 거세지며 이로 인해 뱃길이 막히고 뱃사공들 또한 간담을 졸이게 됨을 말하고, 지금은 겨울이 되어 물이 잦아들어 산허리까지 차올랐던 흔적만 남아 있음을 말하고 있다.

10월 新安驛에서 유숙하며 쓴 다음의 시에서는 그곳의 쓸쓸하고 황량한 경관을 묘사하며 객수를 토로하고, 사람들의 고된 일상과 이색적인 치장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경험한 것 만이 온전한 진리가 아님을 말하며 삶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新安驛(新安驛)〉

孤驛荒山與虎鄰, 외로운 역 황량한 산에서 호랑이와 이웃하는데  
 更堪風雪暗南津, 어찌 견디리, 눈보라에 남쪽 나루 어둡해지는 것을.  
 羈遊如此真無策, 나그넷길 이와 같으니 참으로 방책이 없어  
 獨立悽然默愴神, 서글피 홀로 서서 묵묵히 가슴 아파한다네.  
 木盞汲江人起早, 나무 동이에 물을 길느라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고  
 銀釵簇髻女妝新, 은비녀에 머리 틀어 올린 여인의 치장은 새롭네.  
 蠻風弊惡蛟龍橫, 변방의 삶은 열악하고 교룡이 가로질러 있으니  
 未敢全誇見在身, 자신이 본 건만 오로지 자랑하지 말지니.

3. 역사 유적지 방문

육유는 경로에 있는 뚝과 蜀의 많은 옛 유적과 고대 선인들의 자취를 탐방하면서 이에 대한 감회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업 수립의 열망이나 우국의 결의보다는 공업의 허망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는 비탄의 정서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풍교에서 유숙하며(宿楓橋)〉

七年不到楓橋寺, 칠 년 동안 풍교사에 오질 않았건만  
客枕依然半夜鐘. 나그네 베갯머리에 한밤중의 종소리는 여전한네.  
風月未須輕感慨, 풍월에 쉬이 감동해서는 아니 되리니,  
巴山此去尚千重. 파산은 여기서 아직도 천 겹이나 멀다네.

이 시는 여정의 초반인 6월에 平江의 楓橋에서 유숙하며 쓴 것이다. 육유는 일찍이 39세 때인 隆興 원년(1163)에 鎮江通判으로 부임하며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시에서는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唐 張繼의 〈풍교에서 밤에 정박하며(楓橋夜泊)〉 시의를 차용하여 먼 길 떠나는 나그네의 고단함과 시름을 나타내고 있다.

7월 當塗의 靑山에 있는 이백의 묘를 방문하고 쓴 다음의 시에서도 호방했던 그의 삶을 회상하며 예측할 수 없는 인생행로를 탄식하고, 근처에 있는 東晉시기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桓溫의 묘를 바라보며 인생무상의 감회를 나타내고 있다.

〈이한림의 묘를 조문하며(弔李翰林墓)〉

飲似長鯨快吸川, 커다란 고래가 거침없이 시내 들이키듯 술 마시고  
思如渴驥勇奔泉. 목마른 천리마가 용맹히 샘으로 달리듯 생각했네.  
客從縣令初何有, 객으로 현령을 따른 것이 당초 어찌 있었으리?  
醉忤將軍亦偶然. 취하여 장군을 거스른 것 또한 우연일 뿐이었네.  
駿馬名姬如昨日, 준마와 명기는 어제의 일 같은데  
斷碑喬木不知年. 부서진 비석과 교목은 어느 해부터인지 모르겠네.  
浮生今古同歸此, 헛된 인생 예나 지금이나 함께 이로 돌아가니  
回首桓公亦故阡. 고개 돌려봄에 환공 또한 옛 무덤이 되었구나.

8월 黃州에서 赤壁山 아래에 있는 赤壁磯를 지나면서 쓴 다음의 시에서도 떠도는 관직 생활과 공업 수립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 있다.

〈황주에서(黃州)〉

局促常悲類楚囚,	웅크리며 늘 초나라 죄수와 같음을 슬퍼하고
遷流還歎學齊優.	떠돌며 제나라 배우를 배운 것을 탄식하네.
江聲不盡英雄恨,	강물 소리는 다함이 없어 영웅은 한스럽고
天意無私草木秋.	하늘 뜻은 사사로움이 없어 초목은 가을인데,
萬里羈愁添白髮,	만 리 나그네 시름은 백발을 더하고
一帆寒日過黃州.	한 척 돛배는 차가운 날 황주를 지나네.
君看赤壁終陳迹,	적벽이 끝내 옛 흔적이 되어버렸음을 보시게.
生子何須似仲謀.	아들을 낳아 어찌 손권과 같아야만 하리?

이곳은 실제 曹操와 周瑜의 赤壁之戰이 벌어졌던 곳과는 다른 곳으로, 이 시에서는 관직에 매여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자신의 삶을 탄식하며 유구한 산수 자연과 유한한 인생을 대비하고 있다. 이어 뱃길 따라 먼 길 가는 나그네의 시름을 말하고, 옛 흔적만 남은 적벽을 바라보며 인간 세상 공업의 허망함을 탄식하고 있다.

이어 뱃의 옛 도성이었던 武昌에 들러서는 ‘안개비가 쓸쓸히 자욱한 운몽택이며, 산천이 처량히 시드는 무창궁이로다.(煙雨淒迷雲夢澤, 山川蕭瑟武昌宮)’라<sup>12)</sup> 하며 인생무상의 감회를 나타내고, 9월 강릉江陵을 지날 때는 초나라의 옛 도성인 郢에 들러 황폐한 초나라 궁성의 남은 자취를 바라보며 ‘장허대를 조문하려 해도 물어볼 곳 없고, 황폐한 성의 서리와 이슬에 가시덤불은 축축하네.(欲弔章華無處問, 廢城霜露溼荊榛)’라<sup>13)</sup> 하며 역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의 감회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릉의 石首縣을 지나면서는 秦에 멸망한 楚의 옛 유적을 돌아보며 비통함과 위안을 나타내었다.

〈석수현에서 빗속에 배를 매어두고 놀이 삼아 짧은 노래를 짓다(石首縣雨中繫舟戲作短歌)〉

庚寅去吳西適楚, 경인년에 오 땅을 떠나 서쪽 초 땅으로 가

12) 陸游, 앞의 책, 권2, 〈무창에서 일을 느껴(武昌感事)〉.

13) 陸游, 앞의 책, 권2, 〈영 땅을 슬퍼하며(哀郢)〉 二首其二.

秋晚孤舟泊江渚.	가을 저녁 외로운 배를 강가 모래섬에 정박하니,
荒林月黑虎欲行.	황량한 숲에 달은 어두워 호랑이가 지나려 하고
古道人稀鬼相語.	옛길에 사람은 드물어 귀신이 서로 말을 하네.
鬼語亦如人語悲.	귀신의 말 또한 사람의 말처럼 슬프고
楚國繁華非昔時.	초나라의 변화함은 옛날 같지 않으니,
章華臺前小家住.	장화대 앞에는 작은 집이 살고 있어
茅屋雨漏秋風吹.	초가지붕에 비가 새고 가을바람이 불고 있네.
悲哉秦人眞虎狼.	비통하도다, 진 사람은 참으로 호랑이와 이리 같아
欺侮六國囚侯王.	육국을 속여 능멸하고 왕후들을 가뒀으니,
亦知興廢古來有.	또한 흥하고 폐함이 예로부터 있었음을 알지만
但恨不見秦先亡.	다만 진나라가 먼저 망함을 보지 못함이 한스럽네.
開窗酌汝一盃酒.	창 열고 너에게 술 한 잔 부으니
等爲亡國秦更醜.	어찌 망국이 되어 진나라를 더욱 추하게 하였는가?
驪山冢破已千年.	여산의 무덤은 부서진 지 이미 천 년이 되었건만
至今過者無傷憐.	지금 지나는 사람은 슬퍼하고 가련히 여기질 않네.

시에서는 蜀地로 가는 도중 옛 초나라 땅인 荊州를 지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호랑이가 다니고 귀신들로 가득한 황량한 모습에 옛날의 변화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이어 사납고 잔혹한 진나라가 육국을 패망시킨 일을 떠올리며 진나라와 진 시황에 대한 적의를 나타내고, 한 잔 술을 땅에 부으며 초나라를 추도하고 있다.

9월 公安에 이르러서는 삼국시기 劉備와 呂蒙이 함께 주둔했었던 呂蒙城에 들러 이들의 공업을 떠올리고 ‘옛사람의 공업지에서, 머리 굽으며 나의 노쇠함을 탄식하네.(昔人勲業地, 搔首歎吾衰)’라<sup>14)</sup> 하며 이룬 것 없이 이미 노쇠해져 버린 자신을 탄식하고, 공안에서 60리 떨어진 沙市에 이르러서는 이곳이 형주와 익주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손권과 유비가 대치했었음을 떠올리고 ‘이내 생도 응당 물처럼 흘러가니, 베개 높이 베고 동으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네.(此生應袞袞, 高枕看東流)’라<sup>15)</sup> 하며 인생무상의 감

14) 陸游, 앞의 책, 권2, 〈공안에서(公安)〉.

15) 陸游, 앞의 책, 권2, 〈사두에서(沙頭)〉.

회를 나타내고 있다.

역사유적을 탐방하며 줄곧 망국의 회한과 공업에 대한 회의,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던 육유의 인식과 태도는 여정의 마지막인 기주에 이르러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당관에 들어와 백제묘에 올라(入瞿唐登白帝廟)〉

(중략)

禹功何巍巍, 우임금의 공은 어찌나 높은가?  
 尚觀鐫鑿痕, 새기고 깎은 흔적을 늘 보게 되네.  
 天不生斯人, 하늘이 이 사람을 내지 않았으면  
 人皆化魚鼈, 사람들은 모두 모두 물고기나 자라가 되었으리.

(중략)

參差層巔屋, 들쭉날쭉 층층 전각에서  
 邦人祀公孫, 고을 사람들이 공손술을 제사하네.  
 力戰死社稷, 사직을 위해 힘써 싸우다 죽었으니  
 宜享廟貌尊, 사당에 배향하여 받드는 것이 마땅하리.  
 成敗何足論, 성패를 어찌 족히 따지리?  
 我欲伐巨石, 내 커다란 돌을 잘라  
 作碑累千言, 비석을 만들어 천 마디 말을 남기고자 하니,  
 上陳躍馬壯, 위로는 말 타고 뛰어올랐던 공손술의 군세를 나열하고  
 下斥乘驃昏, 아래로는 나귀에 올랐던 후주의 어리석음을 꾸짖으리.

(후략)

이 시는 夔州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10월 26일 瞿唐關에 이르러 공손술의 사당인 백제묘에 올라 쓴 것으로, 총32운에 걸쳐 치수를 이룬 우임금의 공적을 칭송하며 그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모두 물고기나 자라가 되었을 것이라 말하고, 서한의 사직을 위해 싸우다 죽은 공손술의 공적을 추앙하며 나라를 망하게 한 축한 후주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역사와 공업에 대한 육유의 인식이 기주로의 여정을 마치며 마침내 바뀌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촉 지역에서의 관직 생활을 통

해 공업 수립과 우국 의식에 바탕한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수많은 우국시들을 써내며 중기의 시풍을 형성하게 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Ⅲ. 入蜀詩의 형식

육유는 만년에 자신의 시에 대해 “내가 처음 시를 배울 때에는 단지 문사를 아름답게만 하려 했었고, 중년에 비로소 조금 깨달음이 있어 점차 크고 커다란 것이 엿보이는 것 같았네.(我初學詩日, 但欲工藻繪. 中年始稍悟, 漸若窺宏大)”라<sup>16)</sup> 술회하며 자신의 초기시가 형식수사기교 방면에 치우침을 말하였다. 이러한 초기시에 대한 육유 스스로의 반감은 자신의 시집인 《劍南詩稿》를 편찬할 때 초기시에 대한 대대적인 刪定으로 이어졌으니, 이는 그가 직접 쓴 前集의 跋文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나의 병술년(1166년) 이전에 지은 시의 20분의 1이며 엄주에서 다시 편집할 때 또 10분의 9는 버렸다.<sup>17)</sup>

《검남시고》에 따르면 입축시 이전 현전하는 육유 초기시는 총 167수이며 이중 병술년(1166) 이전 시는 125수로, 육유 전체 시의 1/100에 불과하다.<sup>18)</sup> 결국 현전하는 육유의 초기시는 그것만으로 그의 초기시의 전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과의 비교보다는 그의 전체 시와의 비교를 통해 형식 방면에 있어서의 입축시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劍南詩稿》에 수록된 육유의 작품 총수는 9,136수로, 이중 입축시 63

16) 陸游, 앞의 책, 권78, 〈자홀에게 보이다(示子適)〉.

17) 陸游, 《渭南文集》 권27, 〈시고 발문(跋詩稿)〉 ‘此我丙戌以前詩二十之一也, 及在嚴州再編, 又去十之九’

18) 출처, 《육유시가연구》, 역락, 2010, 25-29쪽 참고.

수로 한정하여 그 형식상의 특징을 고찰하면 전체 작품상의 경향과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다음에서 詩體와 用韻을 중심으로 이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 1. 詩體

총58제 63수의 입축시를 시체에 따라 분류하면 7율 30수, 7절 6수, 5율 13수, 7고 4수, 5고 8수, 잡언 2수로, 그 분포 비율을 육유 전체 작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입축시》 詩體 현황

	근체시				고체시			계 (근체: 고체)
	5언 절구	5언 율시	7언 절구	7언 율시	5언시	7언시	잡언체	
入蜀詩	- (0.0)	13 (20.6)	6 (9.5)	30 (47.6)	8 (12.7)	4 (6.3)	2 (3.2)	63 (77.8:22.2)
육유시 총계	133 (1.5)	1,726 (18.9)	2,108 (23.1)	3,142 (34.4)	1,243 (13.6)	603 (6.6)	181 (2.0)	9,136 (77.8:22.2)

육유의 입축시 중 근체시와 고체시의 비율은 전체 작품과 비교하여 묘하게 일치하고 있다. 입축시는 근체시 중 7언 율시와 5언 율시의 경우 그 비율이 전체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언 절구는 1수도 없다.

시에서 7언 율시와 5언 율시의 비율이 높은 것은 형식기교미를 추구하는 시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중에서도 7언 율시의 비율은 보다 관건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sup>19)</sup> 5언 절구의 경우 또한 한정

19) 이는 許渾, 杜牧, 李商隱, 溫庭筠 등 형식기교를 추구했던 만당의 시인들에게서 7언 율시의 비율이 전체 작품 수의 30~40%에 이르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준연, 《唐代 七言律詩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52쪽

된 자수의 제한으로 인해 형식기교미를 추구하는 시인들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형식이다. 육유의 경우 총133수 중 95%인 127수가 만기에 쓰여진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하루에도 수 십 편씩 써냈던 만기의 창작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sup>20)</sup>

따라서 입축시 중에서 7언 율시의 수가 5언 율시의 두 배가 넘고 전체 입축시의 절반에 가까운 30수에 이르며, 5언 절구가 1수도 쓰이지 않고 있는 사실은 육유의 입축시가 중기시적 위상보다는 강서시파의 영향 하에 형식기교를 추구했던 육유 초기시의 연장 선상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用韻

입축시에서의 형식기교 추구의 양상은 전체 用韻 현황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표 2〉 《입축시》 用韻 현황

詩形	首句入韻		首句不入韻	총계
	一韻到底	鄰韻入韻		
5절	-	-	-	-
5율	12(92.3)	-	1(7.7)	13(100)
7절	5(83.3)	-	1(16.7)	6(100)
7율	25(83.3)	5(16.7)	-	30(100)
계	42(85.7)	5(10.2)	2(4.1)	49(100)

참고.

20) 졸저, 앞의 책, 313쪽 참고.

〈표 3〉 육유 近體詩의 전체 用韻 현황<sup>21)</sup>

詩形	首句入韻		首句不入韻	총계
	一韻到底	鄰韻入韻		
5절	15(11.3)	2(1.5)	116(87.2)	133(100)
5율	229(13.3)	15(0.9)	1,482(85.8)	1,726(100)
7절	1,581(75.0)	90(4.3)	437(20.7)	2,108(100)
7율	2,832(90.2)	171(5.4)	139(4.4)	3,142(100)
계	4,657(65.5)	278(3.9)	2,174(30.6)	7,109(100)

근체시의 압운은 반드시 平聲字를 써야 하며 隔句押韻, 一韻到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압운의 방식에 있어 5언시는 首句入韻을 하지 않고 7언시는 首句入韻을 하는 것이 정격이다. 7언시의 경우 首句의 운을 鄰韻으로 압운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 역시 정격은 아니다.

입축시는 7언 율시의 경우 30수 모두, 7언 절구의 경우 〈풍교에서 유숙하며(宿楓橋)〉 시 1수를 제외한 5수 모두에서 수구입운의 정격을 따르고 있어, 전체 작품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5언 율시의 경우 대부분의 시가 수구입운을 하고 있고, 7언 율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총5수에서 인운입운을 하고 있어 정격에 맞지 않는 것이 보이지만, 5언 율시 또한 모두 일운도저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형식상 커다란 결격 사유라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육유의 입축시를 육유 전체 시의 시기 구분 중 중기시로 여겨왔던 기존 연구의 관점을 바로잡고자, 그의 입축시 63수 전체를 대상으

21) 졸저, 앞의 책, 328쪽 참고.

로 주제와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육유 입촉시의 내용은 크게 여정의 고달픔과 삶의 회한, 여로에 경험한 풍광과 지리 및 풍속의 묘사, 역사 유적지를 방문한 감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바탕에는 득의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궁벽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이 있었다. 또한 시제와 용운을 중심으로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전체 시의 경향에 비교하여 형식기교미의 추구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육유의 입촉시는 본격적으로 蜀지역의 생활을 시작하며 많은 우국시들을 통해 증원수복의 열망과 불굴의 투쟁 의지를 호방한 기개로 표출했던 중기시보다는, 아직까지는 강서시파의 영향 하에서 형식기교의 추구하고 조탁에 힘썼던 초기시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입촉시는 동일한 시기에 쓰인 《입촉기》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 초기시적 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동일 사안에 대한 시와 산문의 각기 다른 서술의 방식과 내용을 통해 시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육유의 인식의 차이 또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예주, 〈陸游의 《入蜀記》에 나타난 인문적 가치 연구〉, 《中國文學研究》 98집, 한국중문학회, 2025.
- 안예선, 〈송대일기(宋代日記): 역사 기록에서 사생활의 기록으로〉, 《중국어문논총》 34집, 중국어문연구회, 2007.
- 육유 저, 이치수·김예주 옮김, 《입촉기》,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22.
- 주기평, 《육유시가연구》 서울: 역락, 2010.
- 주기평, 《정선 육방옹시집》 1-4 서울: 소명출판, 2023.

- 최영준·이승매, <《入蜀記》文學價值研究>, 《中國文學》 66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1.
- 呂肖旻, <陸游雙面形象及其詩文形態觀念之複雜性—陸游入蜀詩與《入蜀記》對比解讀>, 《紹興文理學院學報》 第31卷 第1期, 2011.
- 葉淑婧, <陸游入蜀詩和出蜀詩之比較研究>, 《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 於北山, <陸遊年譜>,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王安琪, <論陸游《入蜀記》中的詩情畫意與愛國情懷>, 《延邊教育學院學報》 第39卷 第3期, 2015.
- 陸游 著, <陸遊集>, 北京: 中華書局, 1976.
- 錢仲聯, <劍南詩稿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correct the conventional view that classified Lu You's Entering Shu Poems as works from his middle period within the overall chronology of his poetry. To do so, it examines the themes and formal characteristics of all 63 poems composed during his journey into Shu.

The content of these poems largely consists of the hardships of travel and reflections of regret in life, descriptions of the landscapes, geography, and local customs experienced along the road, and sentiments felt when visiting historical sites. Underlying these, however, are dissatisfaction with a reality in which he could not achieve his aspirations and lamentation over his own impoverished circumstances.

Furthermore, an examination of the formal features—focusing on

poetic subjects and rhyme schemes—reveals that, compared with the overall tendencies of his oeuvre, the pursuit of formal refinement and technical elegance is expressed even more clearly.

Therefore, Lu You's Entering Shu Poems should not be regarded as middle-period works, in which he began his full-fledged life in the Shu region and, through numerous patriotic poems, expressed with bold spirit his longing for the restoration of the Central Plains and his indomitable will to struggle. Rather, they should be seen as poss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his early poetic period, when he was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Jiangxi Poetry School and devoted his efforts to the refinement and pursuit of formal poetic techniques.

Key Words : 육유(Lu You), 입촉시(Entering Shu Poems), 육유 초기시(Lu You's early season poem), 기행시(Travel poem), 강서시파(Jiangxi Poetry School)

